



어린이 변액유니버설 보험

100조원

환율방어 국제, 국가채무의 30%

교육비·부모 사망시 생활비 동시 해결

중도 인출·추가 납입도 가능... 장기 자산 적립 장점도

자녀 교육비를 대기 위해 해외 산후조리사로 취업하는 40~50대 가정주부들이 늘고 있다. 과거 '소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우물탕이 '어머니가 파출부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서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모골탕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보다 높은 급여를 위해 해외까지 나가 일해야 하는 '기러기 모골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자녀의 교육자금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 펀드인 미래셋자산운용의 '미래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형'의 경우 설정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으며, 어린이 펀드 외에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주식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 등에 가입해 사전에 자녀의 대학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들을 제거하면서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부모의 사망이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부모의 유고시에도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매월 똑같은 월급에 나갈 곳은 많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상 내 집 마련하고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한데, 사망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자녀 교육자금을 위해 일정한 적립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망보장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이다.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은 일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장점인 납입중지,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보험료를 특별계정 내 펀드로 운영해 실제 배당한다는 것 외에 부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장, 부모 유고시 보험료 보험회사 대납 등의 자녀 독립과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특별계정적립금'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지만,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주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주계약으로 설정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특별계정 적립금은 그대로 투자돼 추후 종피보험자인 자녀의 교육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가 22세~26세가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를 부모에서 종피보험자인 자녀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므로 자녀

는 별도의 변액보험에 가입할 필요없이 신계약비가 납입완료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권리를 인수해 이른 시점에 사망보장과 장기자산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도 일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발생하므로 10년 이내의 자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펀드나 인덱스 펀드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10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과 부모의 사망보장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어린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유리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내년 말에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제 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제 잔액은 99조4천억원으로 올해말의 89조6천억원보다 10.9%인 9조8천억원이 늘어난다. 당초 재정부의 11조원의 증액을 예산당국인 기획처에 요청했으나 1조2천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말 외환시장 안정용 국제 잔액은 작년엔 수립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97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이 많은 규모다. 기획처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앞으로의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외환시장용 국제발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체 국가채무 등을 감안해 재정부의 증액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세계 총주주수익률 세계 3위

소매부문... 최근 5년 연평균 33.6% 달해

신세계가 2002~2006년 5년 동안 연평균 33.6%의 총주주수익률(TSR)을 기록하며 소매업 부문 세계 3위에 올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전 세계 14개 산업군 61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TSR을 분석, 4일 발표한 '2007 가치창조 기업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TSR은 기업의 주가 변동과 배당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 가치 창조는 포괄적인 평가기준이라고 BCG는 설명했다. BCG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철강기업인 '발루레'이 조사 기간 연평균 90.2%의 TSR을 기록하며 전체 세계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는 인도 자동차기업인 '마힌드라 엔 마힌드라'(88.4%), 인도 엔지니어링체인 '라센 엔 토브로'(76.9%)가 각각 차지했다. /연합뉴스

IT업체 4분기 1,285명 뽑는다

삼성네트웍스·LG파워콤 등 20여개사

국내 주요 IT·정보통신업체가 올 4·4분기에 모두 1천200여명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에 속하는 IT·정보통신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4·4분기 채용전망을 조사한 결과, 51.2%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34.2%에 달했고, '채용계획이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도 14.6%였다. 또 올 4·4분기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의 채용규모는 1천285명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한국IBM은 영업과 영업지원, 서비스세일즈, 비즈니스 아웃소싱 등 분야에서 50여명의 규모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영어회화 우수자는 우대한다. LG파워콤은 두 자릿수 규모로 대졸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 채용할 예정이다. 삼성네트웍스는 두 자릿수 규모로 오는 9월까지 대졸 신규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전 학년 평점이 평균 3.0 이상(4.5만점 기준)이고, 어학성적은 기술직의 경우 토익 620점 이상, 영업·마케팅·경영지원은 730점 이상이다. /연합뉴스

올 건보재정 적자 4,000억

연초 예상 1,532억보다 훨씬 많아 관리당국 비상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건강보험관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적자가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메우거나, 아니면 가입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줄여야 하는데, 두 방안 모두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상황 추계 결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적자폭은 올해 초 전망치 1천532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올 상반기까지 4천642억원의 당기흑자와 누적흑자 1조6천440억원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총수입(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기타 수입 등)은 13.8% 증가한 데 반해, 총지출(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 지출 등)은 14.0% 늘어 나면서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올해 말 누적적자도 8천34억원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보험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파탄 위기에 몰려 국고보조금을 긴급 수혈 받았던 2002년 6월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험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먼저 보험료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세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자진납부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약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통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000P 안착 7월보다 여건 좋다

남북정상회담·3분기 기업실적 개선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재탈환하면서 2,000시대를 열었던 지난 7월과 10월의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급등 후유증으로 하락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이를 연속 2,000선을 지켰다. 코스피지수는 연휴 전날(2일)보다 10.49포인트(0.52%) 내린 2003.60을 기록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날 코스피지수 2,000 기록을 수립한 지난 7월과 10월의 증시상황을 비교하면서 시장전망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0월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호적 = 하나대투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증시 상황을 7월과 비교하면 정치적 이벤트나 밸류에이션, 수급 등에

비치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6차 회담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해소돼 장기적으로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수 있게 됐다.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7월에 12개월 예상 PER이 13.4배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이익모멘텀이 계속 개선된 덕분에 12배를 밑돌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7월에는 외국인인 선물과 현물의 동반 매도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00 돌파까지 5일 동안 외국인인 거래소시장에서 1조5천억원을 순매도해 이익 실현에 주력했다. 반면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은 매도규모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2일 6천억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2,000 재진입을 견인했다. <미국 고용지표와 실적이 단기변수 =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 증권 등 금융업종과 철강, 운수창고 등이 2,000 돌파를 주도했다는 점은 7월과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 상승탄력이 부진했던 전자 업종이 최근 5일 동안 시장수익률을 상회한 점이 눈에 띈다.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을 저가 매수하는 힘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4분기 국내기업 실적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말에 확인될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와 이익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미국기업의 실적이 2,000 안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전자, 비즈니스 프린터 출시. 삼성전자가 4일 다양한 사무 환경에 최적화된 초소형 비즈니스 컬러레이저 프린터 CLP-351NK를 출시한 가운데 한 모델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논의할 것”

임영록 재경부차관 밝혀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일 “월화가 2002년 이후 달러화 대비 40% 정도 절상됐고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항상 약세라는 인식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율에 대한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등유,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세 인하를 협의한 것과 관련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세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조한 상승세를 보여온 수출이 10월에는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힌 성장 속에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추가 긴축 가능성, 유가 상승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다”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위험) 관리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해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고유가의)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 등 대외불안 요인이 심화되지 않는 한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 격 및 경 령, 연 용 (만 원), 마감 일, 연 락 처. Includes companies like 광양합금철, 위스텔, 오토하우스, 스텝스, 한국특수가스, 태정산업, 대선인일미늄, ㈜신광세링, 하임피저(총장집), 삼창기업, ㈜아이프로, ㈜삼광산업, ㈜케이아이엔씨, ㈜보고정보.

